

Vol. 75

www.hwashin.co.kr

# Hwashin News Letter

하늘타리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 Hwashin News Letter

# Hwashin News Letter

# Hwashin News Letter

2026 / 07

# CONTENTS

## 2026 / 07

# 05

## TOP & TOPIC

기 획 테 마 창립 51주년 기념사  
INSIDE 화 신

05  
10

# 23

## PEOPLE & TALK

기 자 의 이 슈 톱 안전과 건강, 함께 지켜가는 화신의 일상  
프로의 다이어리 같은 R&B, 다른 감성  
화 신 영 리 더 재테크의 필요성과 소소한 돈관리 팁  
오피스 절 친 오피스 절친과 힐링 여행  
화 신 인 스타 그 램

23  
28  
33  
38  
42

# 44

## VIEW & FUN

동 행 의 기 썬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 여행지  
C a r 트 렌 드 분 석 SUV는 어떻게 지구를 정복했는가?  
트 렌 드 돌 보 기 고유가 시대, 달라지는 직장인 이동 트렌드  
편 집 후 기

44  
52  
47  
61

초록빛 여름이 한껏 물을 올리면  
등 뒤로 무겁게 지고 있던  
일상의 시계추를 잠시 붙잡아 둡니다.

빌딩 숲을 벗어난 발걸음 끝에  
와락, 품으로 안겨 오는 파란 바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는  
숨 가쁘게 달려온 날들을 향한  
가장 시원한 응원의 소리입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비치는 뭉게구름과  
달콤한 수박 한 입에 녹아내리는 오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이 투명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배터리는 채워져 갑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가장 눈부신 심포 하나를 찍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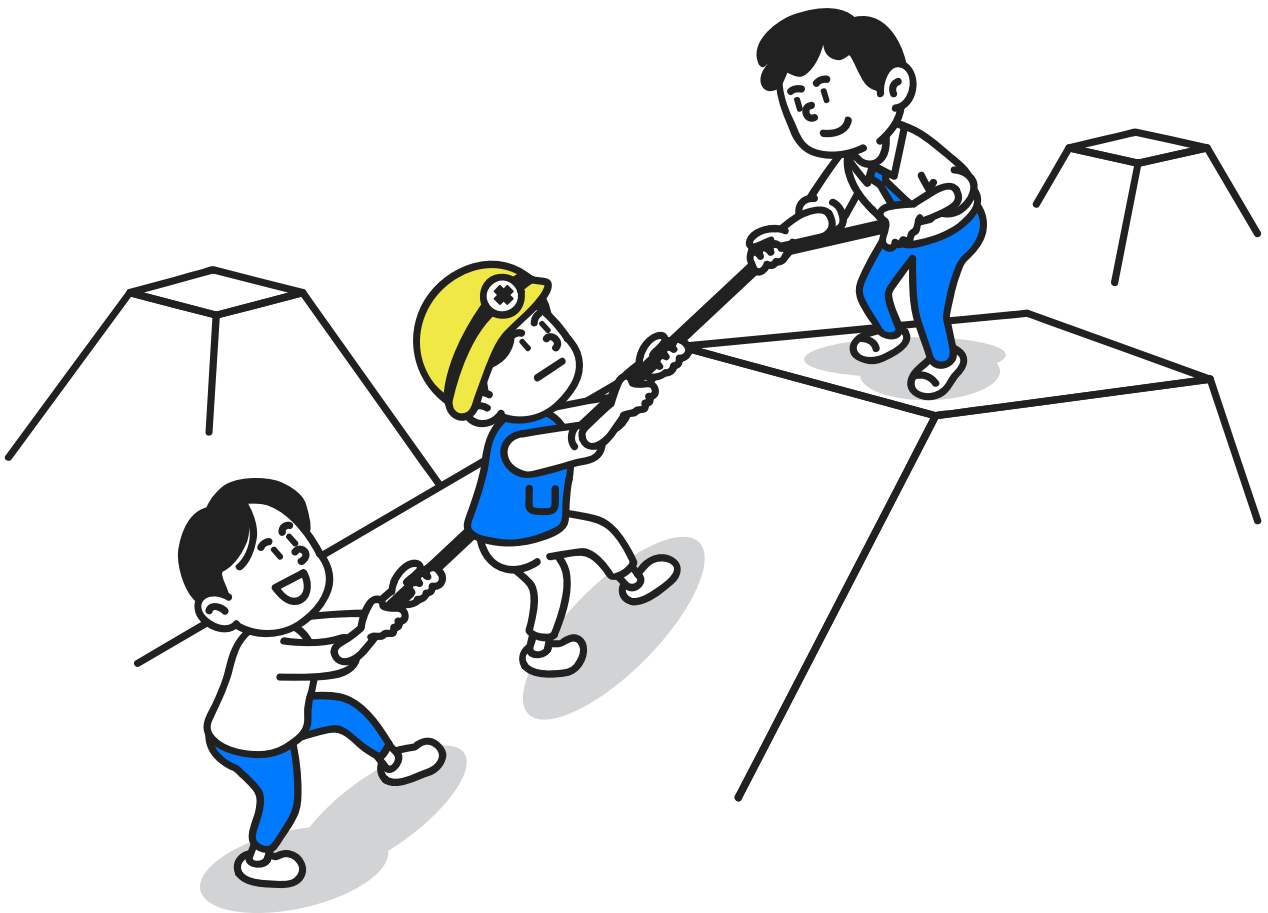


최근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로 인한 쇼크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고객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화신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고객사의 생존이 곧 화신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창립 51주년 정서진 대표이사 기념사 중





창립 제 51주년 기념사

#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 불확실성



오늘 우리는 화신 그룹이 걸어온 51년의 여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뜻깊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화신과 함께하며 오늘의 성장을 일궈내신 선·후배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으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노고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새로운 50년을 향한 마음과 의지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화신 가족 여러분!

화신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노력과 고객사의 생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제품군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미국 조지아와 인도 푸네 법인도 가동에 들어가며 그동안 공들여온 글로벌 생산 인프라 구축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대외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완성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까지 겹치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위기들은 해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은 어쩌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 여러분께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 번째는 “품질 관리 체계의 고도화” 입니다.

올해 경영방침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부분은 ‘품질’ 이었습니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품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고객 역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오랜 시간 관리하고 개선해 온 영역인 만큼 기존 방식만으로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품질은 특정 개인의 노력이나 특정 부서만의 활동으로 완성될 수는 없으며,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저절로 관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숙련된 사람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품질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작은 품질 이슈 하나도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큰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 구성원이 품질의 최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람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두 번째는

### “고객사와 상생을 위한 원가 경쟁력 확보” 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로 인한 쇼크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고객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화신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고객사의 생존이 곧 화신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과 같은 원가 절감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설계, 구매, 생산, 물류 등 제조 전반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관점으로 각자의 업무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객사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 입니다.

2026년 재계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AI였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과 업무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AI를 무조건적 맹신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AI 활용 방식에 따라 업무 속도와 결과물의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AI라는 도구가 더해질 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  
대표이사 사장 정서진







# INSIDE 화신

화신 / 화신정공 / 해외법인

##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 01 AI 기반 제조 혁신, 화신의 미래를 그린다 - ‘자율제조기술 세미나’

(주)화신 자율제조기술팀은 지난 2월, 인사팀의 협조 아래 화신그룹 임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6시간동안 ‘AI 기반 제조기술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 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 김명섭 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와 미래 로봇 자동화 등 급변하는 제조 환경 속에서 화신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요 교육 내용]

- 1차 | 2/11(수)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AI와 미래 로봇 자동화 경영 전략 |  
2차 | 2/24(화) |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빅데이터 전략 |



### 02 제51기 정기주주 총회

지난 3월 24일, 화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주총은 영업 및 감사 보고와 부의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정서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화신은 미국과 인도 신공장의 성공적 가동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을 완성하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주주와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2026년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해 외형 성장을 넘어 ‘내실 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품질 관리와 제조 경쟁력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 탄소 중립 등 ESG 경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화신은 이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과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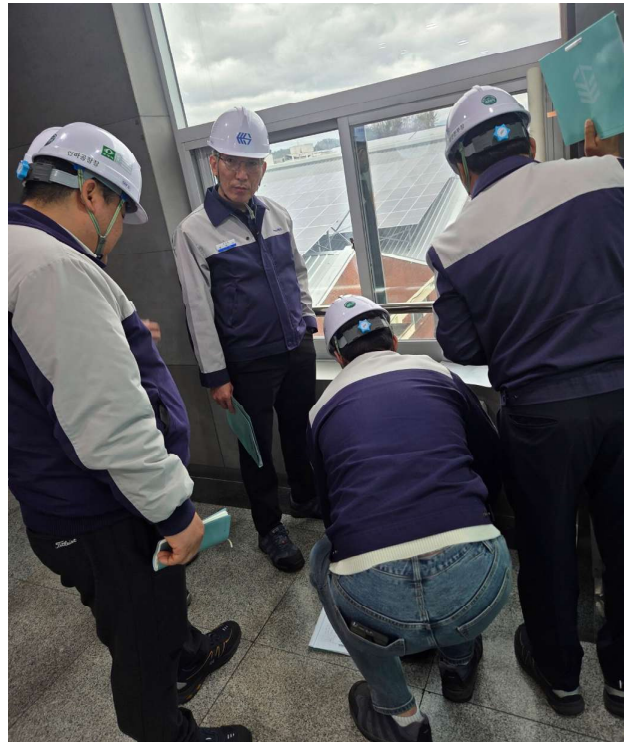


##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 03 안전한 일터 조성, 노사가 손잡다!

(주)화신이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사적 안전 행보에 나섰습니다. 화신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일주일간 부사장 주관하에 '2026년 노사합동 특별 화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건조한 봄철 화재 취약 시기를 맞아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공동 점검단을 구성해 전 사업장의 생산 라인, 위험물 저장소, 전기 설비 및 소방 시설 등을 전방위적으로 순회하며 정밀 진단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점검단은 현장 작업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 부사장과 노사합동 점검단이 생산 현장 내 소방 설비 및 화재 취약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직후 집계된 '노사합동 화재 특별 점검 중간 개선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굴된 미비점 중 상당수가 즉각 조치 및 단기 개선을 통해 빠르게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일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와 설비 보강 등 체계적인 후속 관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사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마치며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는 기업 경영의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챙긴 만큼,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노조 관계자 역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는 노사가 따로 없다”며,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화신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안전'에서 출발하는 화신의 2026년, 노사가 함께 일구어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 04 안전한 출퇴근길, 행복한 일터의 시작! '봄철 안전운전 캠페인' 성료

(주)화신이 임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하고 사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봄철 안전운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화신'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 겨울 대비 사고 25% 증가, 통계가 증명하는 졸음운전의 위험성

총무팀이 분석한 교통 통계 자료에 따르면, 봄철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겨울철(528건) 대비 약 25% 증가한 660건에 달합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졸음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1.4%로 교통사고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봄철 춘곤증으로 인한 눈 깜빡임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무팀은 사내 게시판과 KMS(지식관리시스템)를 통해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졸음운전 예방 5대 수칙'을 전파하며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 ■ 졸음운전 예방 5대 꿀팁

- ① 최소 10분 쉬어가기 : 피곤할 땐 휴게소나 졸음 쉼터 활용하기
- ② 리프레시 물품 섭취 :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 껌, 물 섭취하기
- ③ 2시간마다 휴식 : 장거리 운전 시 2시간에 한 번씩 쉬어가기
- ④ 주기적인 환기 :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신선한 산소 공급하기
- ⑤ 동료 보호하기 : 앞차가 졸음운전 주행을 할 땐 경적 소리로 주의 주기

### ■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졸음 방지 껌 비치까지, 세심한 지원

총무팀은 캠페인 기간 동안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위해 차량 내 실내 소독 및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운전 중 밀려오는 졸음을 즉각적으로 쫓을 수 있도록 차량 내에 졸음 방지용 껌을 상시 비치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총무팀 관계자는 “안전의 기본은 철저한 사전 점검”이라고 강조하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출발 전 타이어나 제동 장치 등 차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안전 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습니다.

단 10분의 휴식이 소중한 인생과 가족의 행복을 지킵니다. 캠페인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모든 화신인들이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 05 (주)화신, 2026년 종합 소방 합동 훈련 성료... ‘안전 일터’ 구축 총력

(주)화신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and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소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신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하공장 및 기술연구소, 봉동공장, HTP공장 등 총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종합 소방 합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공장은 별도 진행)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합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각 자위소방대 지구대별 임무에 따른 신속한 대피와 피난 안내 유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화재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 ■ 사업장별 맞춤형 훈련 전개

훈련은 각 사업장의 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언하공장 & 기술연구소 : 4월 28일(화) 14:00 ~ 15:00 (보고자: 부사장 & 안전환경담당)
- HTP공장 : 4월 29일(수) 13:30 ~ 14:30 (보고자: 본부장 & 공장장)
- 봉동공장 : 5월 6일(수) 11:00 ~ 12:00 (보고자: 공장장 & 생산2팀장)

### ■ 실전을 방불케 한 생생한 훈련 현장

이러진 본 훈련에서는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다각도의 소방 실습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직접 소화기를 분사하며 초기 진화 요령을 몸소 익혔습니다.

특히, 자위소방대 각 지구대별 소화반원들은 사업장 내 배치된 소화전에서 호스를 전개하고 결속하여 목표 지점에 정확히 방수하는 전술 훈련을 실시, 자체 초동 진화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뒤이어 출동한 소방차의 고압 방수 시연과 공장 시설물 합동 방수 훈련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 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는 전 임직원이 모여 강평을 청취하며 소방 안전의 중요성과 각자의 임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환경보건팀 관계자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철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신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06 지구와 건강을 살리는 한 걸음, '계단 이용하기 날' 지정 및 캠페인 본격 전개

(주)화신이 글로벌 저탄소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총무팀은 임직원들의 탄소 배출 저감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연구소 출입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계단 이용하기 날'을 지정하여 상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매주 금요일은 '계단 오르는 날'! 일상 속 탄소 다이어트

이번 캠페인의 핵심 실행 계획에 따라 매주 금요일은 기술연구소의 '계단 이용하기 날'로 운영됩니다.

계단 1층을 오를 때마다 약 6g의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1층 이동 시 소비되는 전력(0.0127 kWh)과 한국전력 기준의 1kw당 탄소 배출량(0.478 kg CO<sub>2</sub>eq)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 ■ 한눈에 보는 계단 이용의 효과

- 1개 층 오르기 : 약 6g의 탄소 감축
- 하루 5개 층 걸어 오르기 :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것과 다름없는 환경 보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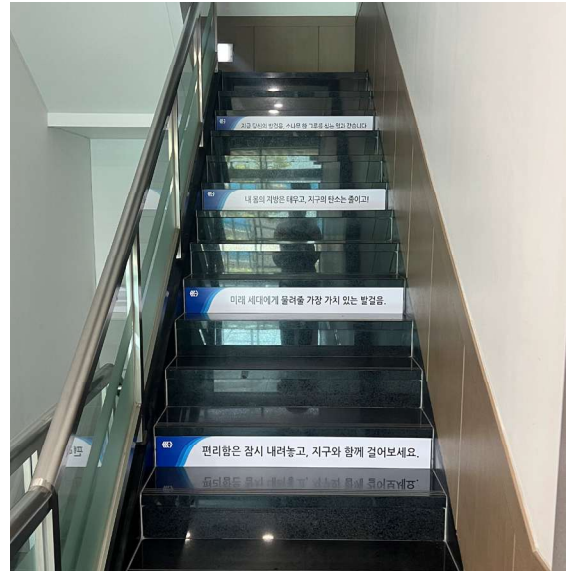
##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 ■ 친숙한 문구와 시각 자료로 사내 참여 독려

총무팀은 임직원들이 탄소 감축 효과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친숙한 수치로 변환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술연구소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계단 측면에는 “이 계단을 오르면 지구의 온도가 0.006도 내려갑니다”, “건강도 UP, 지구의 수명도 UP” 등 재치 있고 직관적인 광고물을 부착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 업무연락서 발송 및 사내 KMS 게시판 공지를 통해 캠페인 취지를 공유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안팎에도 포스터를 부착해 임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물 제작 및 부착, KMS 홍보 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시 운영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화신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글로벌 저탄소 경영 체계를 견인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지구의 수명도 늘리고 임직원의 건강도 지키는 금요일 계단 오르기에 모든 화신인들이 즐겁게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07 미래를 향한 따뜻한 동행, '제22회 우석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역 사회 발전과 미래 주역이 될 글로벌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우석장학문화재단이 올해도 꿈을 향해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22회 우석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뜻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5월 11일에는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고등학생 92명에게 6,8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어 5월 21일에는 (주)화신 기술연구소 우석홀에서 대학생 60명에게 2억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수여식을 통해 전달된 장학금은 총 152명, 2억 7,850만 원에 달합니다. 우석장학문화재단은 (주)화신그룹의 설립자이신故 우석 정호 회장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2005년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현재 정서진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맡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 《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정서진 이사장은 이번 수여식을 맞아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장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발휘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단의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재단은 총 72억 2,300만 원의 기금을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041명의 학생에게 누적 28억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회를 밝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석장학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인재에 대한 지원은 곧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는 신념 아래,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08 예산공장 임직원 / 예산소방서와 26년도 합동 소방훈련 진행하다

예산 인근지역의 동중업체 화재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

26년 5월 11일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실제 같은 화재 대응 훈련으로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예산공장 임직원은 소방서의 화재 발생유형, 대피방법, 소화설비 사용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화신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HWASHIN NEWS \_ 화신정공 뉴스

## 01 화신정공, 제16기 정기 주주총회

화신정공은 지난 2026년 3월 24일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주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영업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심의 순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화신정공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지난해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HWASHIN NEWS \_ 화신정공 뉴스

### 02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화신정공 박승철 조장이 노동자 권익 향상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 조장은 2026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가 수여하는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5월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6년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표창은 노동자 권익 향상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박 조장의 현장 중심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 활동,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박 조장은 오랜 기간 제조 현장에서 품질 향상과 생산 효율 증대에 힘써왔으며, 동료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전수식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장과 함께 축하 꽃다발이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상은 박 조장의 성실한 업무 수행과 헌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HWASHIN NEWS \_ 해외법인 뉴스

### 01 [미국 알라바마법인] 2026년 품질결의식 개최('26.01.20)

2026년 1월 20일 품질 결의식을 개최하여 전 임직원이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본(Fundamentals), 절차(Procedure), 표준(Standard), 검증(Verification), 기록관리(Documentation)를 5대 핵심 준수 항목으로 선정하고 품질 실천 서약을 진행했습니다.



### 02 [미국 알라바마법인]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실시

화신 알라바마는 (좌)LOTO(Lockout/Tagout)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관리자와 현장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순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HWASHIN NEWS \_ 해외법인 뉴스

### 03 [미국 조지아법인] Ford Supplier Summit 참석('26.06.03~04)

6월 3일~4일, 조지아법인은 FORD 본사에서 개최된 주요 협력사 공급망 회의에 참석하여 미래 공급망 전략과 산업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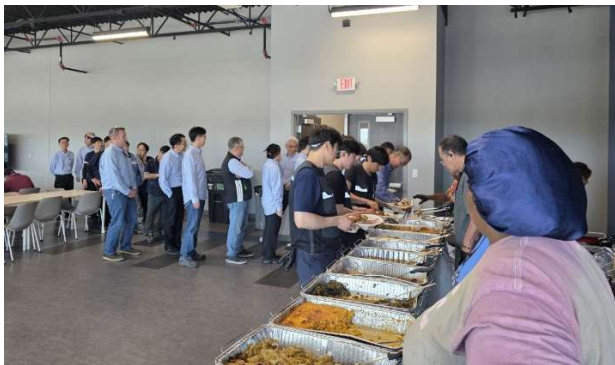
품질과 공급망 안정성,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27년 신차 개발 계획 및 파일럿 공장 방문(P833사양)을 통해 고객사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04 [미국 조지아법인] 1분기 특식의 날 진행

조지아법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분기 '특식의 날' 행사를 실시하며 임직원 사기 진작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식 특식을 제공하여 한국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향후 매 분기 진행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05 [인도 첸나이법인] 환경·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EOHMS) 관련 점검('26.3.28)

환경·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EOHMS) 강화를 위해 ISO 14001 및 ISO 45001 인증 갱신 심사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안전경영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교육 내용이 실무에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사례와 토론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HWASHIN NEWS \_ 해외법인 뉴스

### 06 [인도 첸나이법인] (월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실시('26.01월)

월별 정기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좌)샐다운 공사 안전교육, (우)방어운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로 감전사고 예방, 외주업체 안전관리, 차량 관리 및 안전운전 수칙 교육을 통해 근로자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07 [인도 푸네법인] (주간) 상반기 정기 TBM 활동(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전사 품질방침에 따라, 푸네법인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TBM(Tool Box Meeting) 활동을 운영하며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를 기반으로 주 1회 TBM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기 안전, 개인보호구(PPE) 착용 및 지게차 안전수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08 [중국 북경법인] 사장님 해외법인 출장 점검 보고('26.04.09)

2026년 4월 9일, 사장님의 북경법인 현장 점검을 통해 생산 및 품질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 수준과 용접 단면 검사 체계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법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HWASHIN NEWS \_ 해외법인 뉴스

### 09 [중국 북경법인] 베이징 국제 모터쇼('26.04.24)

2026년 4월 24일 북경법인은 제19회 베이징 국제 모터쇼를 참관하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과 시장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BYD, 샤오펑, 니오 등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전시를 주도했으며, 북경법인의 주요 고객사인 북경현대와 BYD를 비롯한 현지 OEM의 신차 및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10 [브라질법인] 현장품질평가 개선 활동('26.02)

현장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부 TFFT를 구성하고 사전진단 및 자체 점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른 프로세스 진단과 개선과제 도출을 통해 현재 품질관리 수준을 점검했으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현장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 11 [브라질법인] 신차 양산 전, 품질 100일 작전 전개('26.5월~)

신차(BC4b) 양산 품질 안정화를 위해 '100일 작전'을 전개하며 초기 품질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 전수검사 인원 운영,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협력업체 품질관리를 통해 양산 초기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 HWASHIN NEWS \_ 해외법인 뉴스

## 12 [베트남법인]

### 베트남 최대 명절 '땃(Tet)' 맞이 기념행사('26.2월)

베트남 최대의 전통 명절이자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연휴인 음력 설 '땃(Tet)'을 맞아, 베트남 탄콩화신은 공장 및 사무실 환경을 정비하고 임직원이 함께하는 뜻깊은 명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 13 [베트남법인]

###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26.3.8)

베트남 탄콩화신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내 여성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서로 화합하며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 안전과 건강, 함께 지켜가는 화신의 일상

글/사진 안전환경보건팀 이해인 주임



## 안전문화행사 실시 및 2026년 임직원 제휴기관 확대

화신에서는 임직원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와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연속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전사 안전문화행사를 실시했으며, 5월에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와 재활·교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제휴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안전은 나와 내 주변을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알리고 조치하는 실천이 모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듭니다. 건강 역시 특별한 날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관리할 때 더욱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속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행사

2026년 새해가 시작된 1월, 사업장 내에서 4건의 경미 재해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반복될 경우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설 연휴 전후 현장의 안전 긴장감을 높이고 유사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특별 안전예방 강조기간을 운영했습니다.



### ① 설 맞이 전사 안전캠페인

안전캠페인은 2월 9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언하·봉동·하이테크 사업장 출입구 주변에서 현수막을 들고 안전 구호를 제창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각 사업장 현장 보유 팀장 및 팀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근 발생한 재해유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떨어짐” PLT 올라가는 순간, 사고 시작

“넘어짐” 넘어짐은 순간, 부상은 오래

“끼임” 잠깐의 부주의, 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넘어짐과 끼임 사고는 생산현장뿐만 아니라 사무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단과 통로의 단차, 돌출된 바닥면 등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와 무거운 장비·물품을 옮기거나 내려놓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 역시 일상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무공간에서도 이동 전 바닥 상태와 주변을 확인하고, 무거운 물품은 혼자 무리하게 옮기지 않으며,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② TBM 활동 시 재해 사례 전파

TBM은 작업 전 작업내용과 유해·위험요인, 보호구 착용,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작업에 앞서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특별 안전예방 강조기간에는 최근 발생한 재해 사례와 유사사고 사례를 TBM 시간에 집중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실제 사고사례를 통해 작업자가 위험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일상점검, 안전·보건 관리자의 수시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동 실무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규 및 기존 제휴기관 안내

화신은 임직원과 가족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제휴 기관을 안내드리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필요 시 활용하시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규 제휴업체 소개

화신은 올해 근골격계 통증 치료와 재활·교정 분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곳의 신규 제휴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대구에 위치한 ‘메디칼케어’입니다.** 통증 재활 및 체형 교정 전문 기관으로 통증 완화를 넘어선 근본적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기관은 영천에 위치한 ‘마디튼튼정형외과의원’입니다.**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비수술 통증 치료 전문 기관으로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게시판의 “근골격계 재활·물리치료 협약기관 운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② 기존 제휴업체 소개

화신은 신규 제휴기관 외에도 치과·안과·운동시설·종합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협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YC리더스치과담당자제공

#### **첫 번째는 YC리더스치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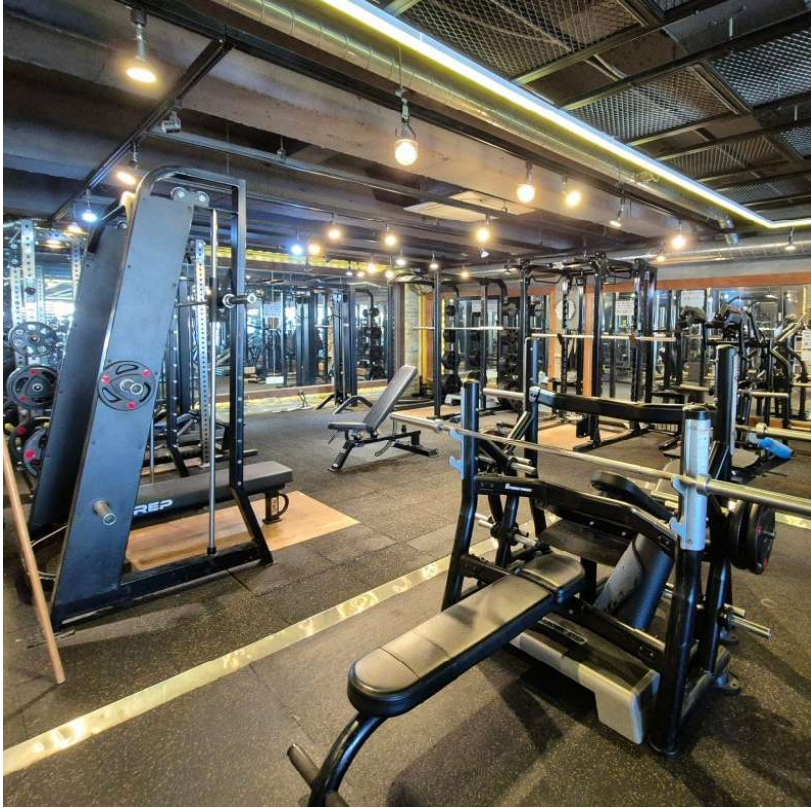
인플란트, 교정, 틀니, 심미치료 등 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이전을 기념해 새로운 위치와 제휴 혜택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치과 진료는 증상이 심해진 뒤 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료기관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구강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누네안과병원입니다.**

시력교정술을 비롯하여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다양한 안과질환 진료와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은 업무 집중도와 일상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는 단디휘트니스입니다.

회원권과 PT 등록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 향상, 체중관리,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게시판의 “2026년 화신 제휴업체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my/602f288873b4daec090e3936/reviewfeed?sort=VISIT\\_DATE\\_TIME\\_DESC&mediaFilter=WITH\\_MEDIA&reviewId=672ae7167f2fe6b8b14bdb86](https://m.place.naver.com/my/602f288873b4daec090e3936/reviewfeed?sort=VISIT_DATE_TIME_DESC&mediaFilter=WITH_MEDIA&reviewId=672ae7167f2fe6b8b14bdb86))

### 마지막은 천주성삼병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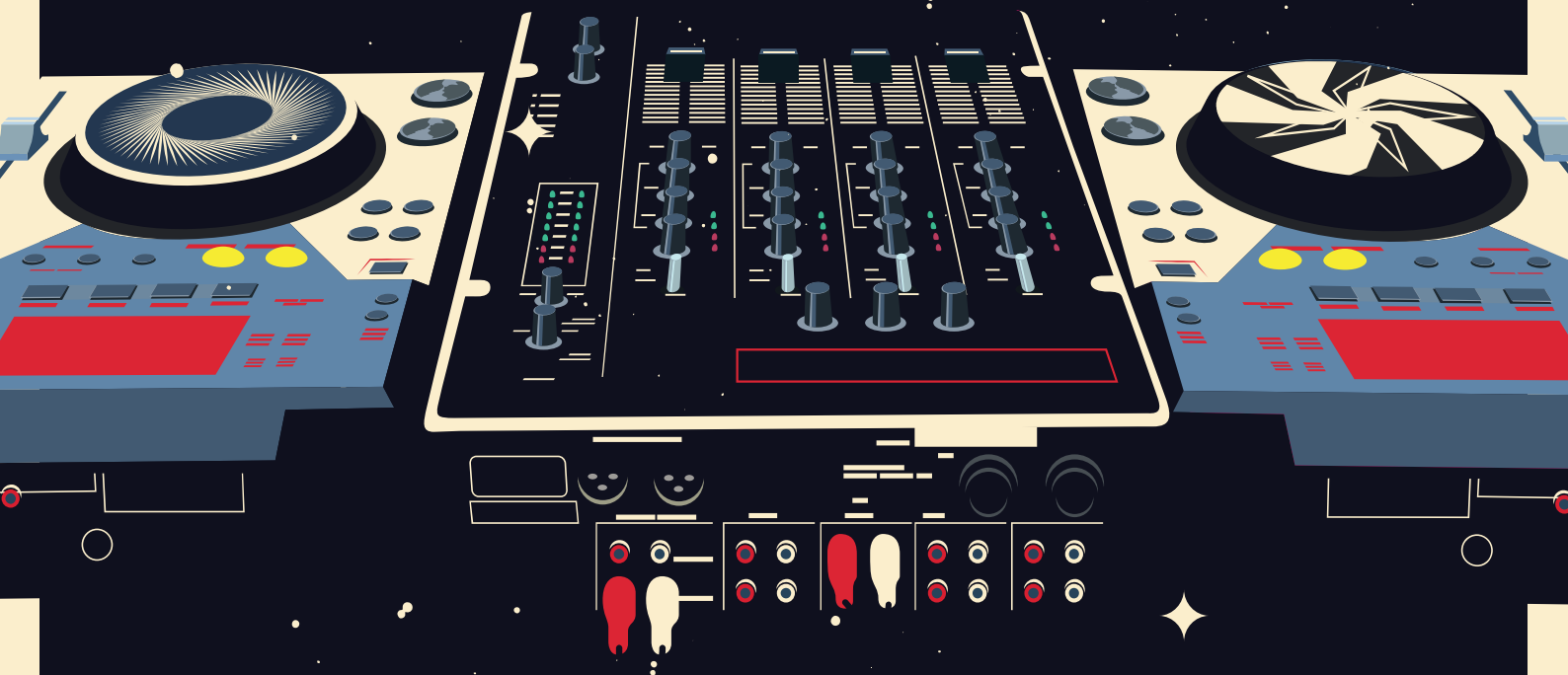
화신은 복지혜택으로 만 41세 이상 정규직 직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외 개별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신 단체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원무과 정산 시 신분증과 사원증(없을 시 재직증명서)을 제시하면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환자·보호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건강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과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같은 R&B, 다른 감성

글/사진 부품개발팀 노준혁 주임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이어폰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지만, 저에게는 음악이 가장 편안한 휴식이자 취미입니다. 특히 저에게 R&B 장르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잊게 해주고, 때로는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R&B를 듣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PBR&B라는 장르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음악이 전달하는 분위기와 감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평소 즐겨 듣는 R&B와 PBR&B의 차이점, 그리고 직접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감정을 들려주는 음악, R&B

R&B는 Rhythm & Blues의 약자로, 부드러운 멜로디와 감성적인 보컬이 특징인 음악 장르입니다. 가수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이 중심이 되며, 사랑과 이별, 추억, 희망 등 다양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화려한 사운드보다는 목소리 자체가 가진 힘과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노래에 몰입하게 됩니다.

제가 R&B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퇴근 후 조용한 시간에 듣는 R&B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출처: [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09/201908091021143833\\_d.jpg](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09/201908091021143833_d.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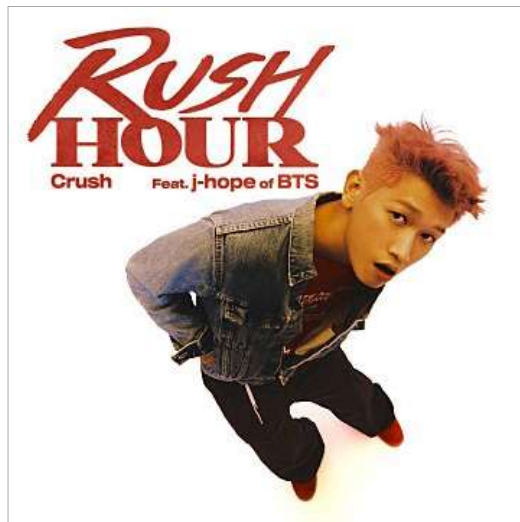
## 분위기를 느끼는 음악, PBR&B

PBR&B는 Progressive R&B 또는 Alternative R&B라고 불리는 장르로, 기존 R&B에 힙합과 전자음악, 앰비언트 사운드 등을 결합하여 보다 현대적인 감성을 담아낸 음악입니다. 전통적인 R&B가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면, PBR&B는 음악 전체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공간감을 통해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같은 R&B 계열 음악이라도 PBR&B는 조금 더 몽환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악기 소리와 공간감이 느껴지기도 하며, 이러한 점이 PBR&B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vibe.naver.com/album/61957>



출처: <https://vibe.naver.com/album/8094155>

## R&B와 PBR&B

R&B와 PBR&B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음악이 전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R&B가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악이라면, PBR&B는 분위기와 사운드로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 R&B라면,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듣고 싶은 음악은 PBR&B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장르를 선택해 듣곤 합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는 R&B를, 조금 더 깊은 감성에 빠져들고 싶을 때는 PBR&B를 찾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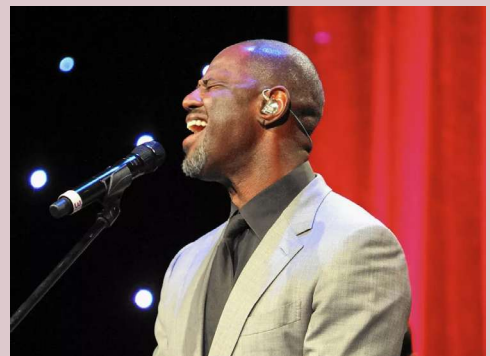
## 노준혁 주임의 R&B 추천곡

### Brian McKnight- Another You

R&B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한명인 Brian McKnight의 Another You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R&B 곡 중 하나입니다.

잔잔하게 시작되는 피아노와 특유의 깊은 보컬은 곡이 시작되는 순간 부터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래 전체에 담겨 있는 따뜻한 감성과 진솔한 분위기는 마치 오래 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처 : <https://www.latimes.com/entertainment/music/la-et-ms-babyface-brian-mcknight-review-20150818-story.html>

화려한 편곡이나 강한 비트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R&B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로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듣기에 좋은 곡이며, 처음 R&B를 접하는 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 **Giveon - Heartbreak Anniversary**

요즘 인기있는 R&B 곡 중에서는 Giveon의 Heartbreak Anniversary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Giveon 특유의 중저음 보컬은 곡이 가진 감정을 더욱 깊게 전달해 주며, 이별이라는 주제를 담담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발라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해서 들을수록 보컬이 가진 매력과 멜리즈마에서 나오는 감정선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들으면 곡이 가진 분위기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해외 R&B 특유의 세련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dvysm2/223997868115>

## **노준혁 주임의 PB R&B 추천곡**

### **Crush - 2-5-1**

크러쉬는 국내 R&B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지만, 「2-5-1」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PBR&B 감성을 보여줍니다. 제목에서의 2-5-1은 재즈 감성을 만드는 대표적인 코드 진행을 뜻합니다. R&B와 재즈의 클래식함을 접목시킨 코드 진행의 곡으로 들을수록 섬세한 보컬과 다채로운 사운드로 곡 전체를 감싸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그루브는 일반적인 R&B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PB R&B는 다채롭고 섬세한 사운드로 특히 나른한 출근길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드라이브를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자주 듣는 곡이며, PB R&B 입문곡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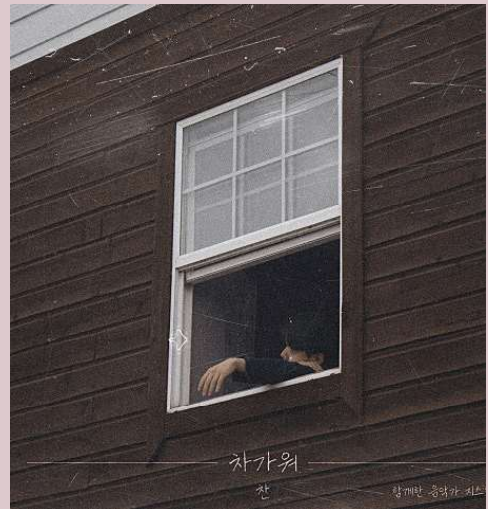


출처: [https://image.genie.co.kr/Y/IMAGE/IMG\\_ALBUM/086/652/071/86652071\\_1756262569407\\_1\\_600x600.JPG/dims/resize/Q\\_80,0](https://image.genie.co.kr/Y/IMAGE/IMG_ALBUM/086/652/071/86652071_1756262569407_1_600x600.JPG/dims/resize/Q_80,0)



## Chan - 차가워

최근 가장 좋아하는 PBR&B 아티스트인 Chan의 차가워입니다.  
제목처럼 차분하고 쓸쓸한 감성이 곡 전체에 녹아 있으며, 절제된 보컬과  
몽환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들을수록 곡이 가진 분위기와 감  
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특히 늦은 밤 혼자 음악을 듣고 있을 때 곡  
이 가진 매력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PBR&B가 가진 공간감과 감성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하며, 새로  
운 음악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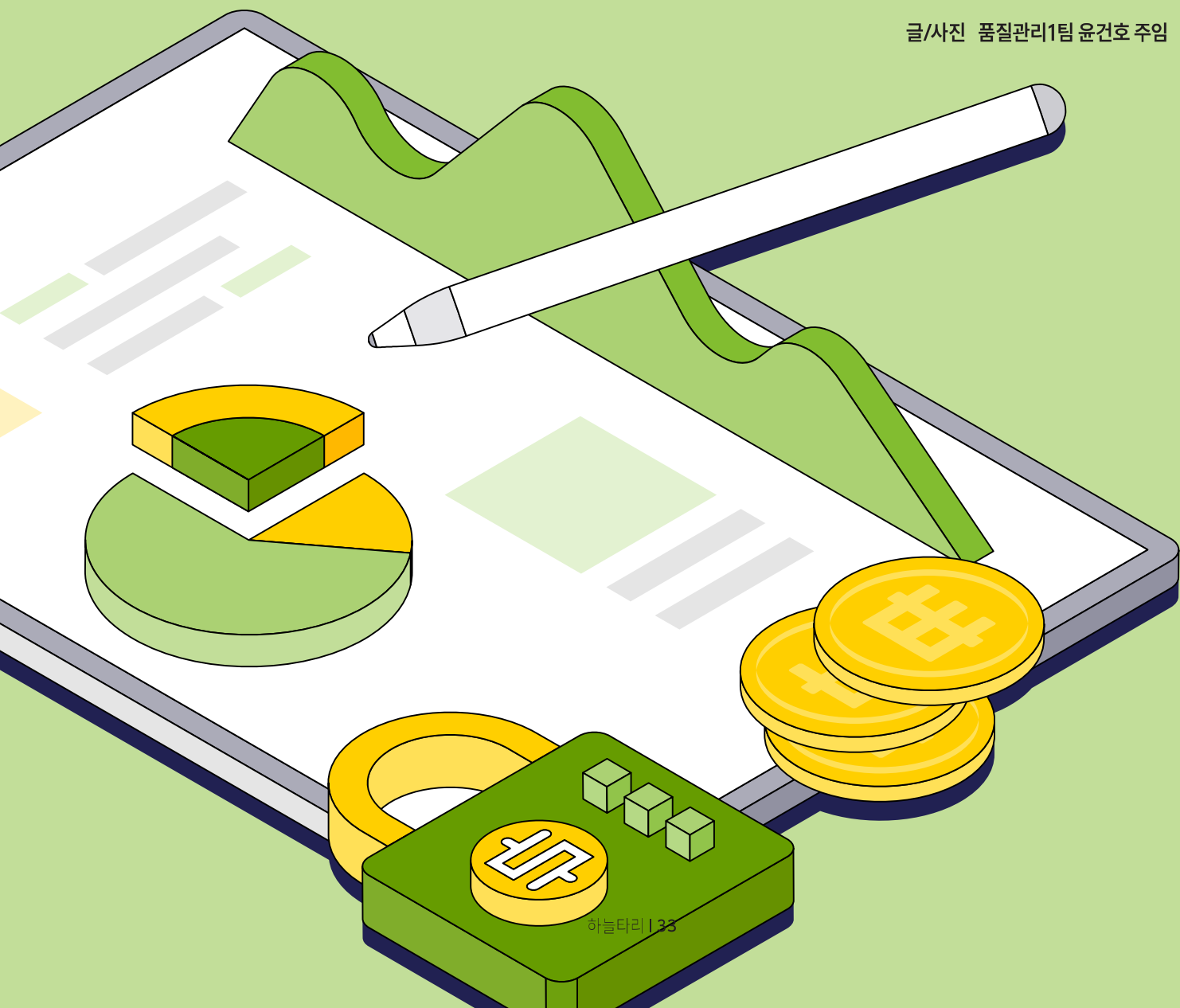
출처 : <https://vibe.naver.com/track/61934549>

## 음악이 주는 작은 휴식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음악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소중한 휴식이 되어 줍니다.  
R&B는 따뜻한 감성으로 위로를 전해주고,  
PBR&B는 다채롭고 몽환적인 사운드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R&B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평소 듣던 음악만 반복해서 듣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R&B와 PBR&B를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해외 R&B아티스트들의 따뜻한 울림부터  
국내 PBR&B 아티스트들의 몽환적이고 다채로운 감성까지,  
같은 R&B 안에서도 다양한 음악의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테크의 필요성과 소소한 돈관리 팁

글/사진 품질관리1팀 윤건호 주임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커리어 성장, 개인적 목표와 꿈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일 것입니다. 신입 사원의 경우 집, 차, 결혼, 노후 준비 등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최근 입사를 하게 되면서 월급 관리 계획을 다시 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아봤던 '재테크를 해야하는 이유'와 '소소한 돈관리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재테크를 해야하는 이유

적금만으로 돈을 모으신다면 이 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글을 읽기 앞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절대 아님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밥 한끼 먹으면 만원은 우습게 넘어가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말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소비자물가 총지수(2020=100) | 100.0 | 102.5 | 107.7 | 111.6 | 114.2 | 116.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 2.5   | 5.1   | 3.6   | 2.3   | 2.1   |

「소비자물가조사」-국가데이터처, 2026.05.27

출처 :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4226>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위 표를 보면 실제 물가는 2020년을 기준으로 매년 2% 이상 특히 2022년에는 5.1프로나 올랐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2020년에 100만 원인 물건이 2025년에는 116.6만 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돈을 그냥 통장에 들고 있다면 저 가치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근 적금은 청년 상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3~4%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만기 시 발생하는 소득세 15.4%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적금은 돈을 모으는 정답일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집 구매 비용 등 없으면 안되는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써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바로 적용 가능한 소소한 팁

요즘 주변을 보면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코스피 지수가 비약적 상승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져 보입니다. 하지만 큰 수익만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 1. 파킹 통장 CMA 통장 활용

이 글이 도움될 분들

- 1) 집 전세금 등 목돈을 단기간 보관할 예정인 사람
- 2) 소액(약 30~70만 원)의 생활비를 그냥 통장에만 넣어둔 사람
- 3) 최근 주식으로 많은 현금을 확보해 다음 투자처를 찾으려 방치중인 사람

여유돈을 어떻게 보관할지 몰라 일반 입출금 통장만 사용 중이시라면 파킹 통장이나 CMA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킹통장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고금리 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잠시 '주차(Parking)'하듯 맡겨두면서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연 0.1~0.2% 수준인 반면, 파킹통장은 연 2~4%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CMA(Cash Management Account) 통장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계좌로, 예치된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합니다.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며 투자 대기 자금을 관리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이처럼 일반 입출금 대비 수십 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 조금 귀찮아도 한 번쯤 계좌를 개설해두면 치킨 한 마리에서 소고기 한 번은 공짜로 드실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축 후에 생활비만 넣고 고 조금씩 빼서 사용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이자 7%로 괜찮지만 보관 금액이 적어 너무 소소해서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청년 정책 통장 활용

이 글이 도움될 분들 : **청년**

청년이라면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과 세제 혜택이 있는 정책 상품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이자에 정부 기여금도 있기 때문에 가입 조건만 된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명했던 계좌로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었고 2026년 6월에는 새로운 청년 계좌인 내일미래 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도 이미 유명한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가 가능한 통장을 알아보고 빨리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꿀팁 2가지 안경비 및 기부 활용

### 안경비 의료비 공제

이 글이 도움될 분들 :

**안경을 쓰는 사람 및 안경을 쓰는 가족이 있는 사람**

안경과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로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가족까지 인당 5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니 잘 챙기면 상당히 쓸쓸한 금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부터 적용되며,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계산된 시술(라식, 라섹)의 경우에는 의료비로 신고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동네 안경점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혜택을 위해 중요한 점은 평소 계산할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안경비 의료비 공제 신청 흐름

### 1.1) 홈택스 자동 조회 확인

먼저 간소화 서비스 및 의료비 항목에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

### 1.2) 누락 시 영수증 직접 제출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문구가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1.3) 카드 소득세와 중복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면 됩니다.



도수가 없는 미용 목적의 패션용 아이템의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안경은 쓰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항목입니다.

## 기부 활용한 연말 정산

이 글이 도움될 분들 : 모두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소액의 경우 기부를 통해서 아주 소소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 바쁘는데 무슨 기부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금액은 작을지언정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20만 원 이하 기부입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 추가로 답례품을 3만 원 치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 느낌입니다. 전 연말정산은 해본 적 없기에 답례품을 팔 수 있으면 팔아서 치킨 사 먹을 예정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vs20만원

출처 : [blog.naver.com/hye8431/224266421402](https://blog.naver.com/hye8431/224266421402) (2026.04.27)

**솔직히 소소한 습관이 큰 돈은 모르겠지만 적당한 비상금 또는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 인생의 속도를 맞춰준

## 오피스 절친과의 힐링 여행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오래된 초등학교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동료들이 있어  
치열한 현장의 고민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손을 보태주고,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을 달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업무를 넘어 인생의 속도를 함께 맞춰주는 ‘오피스 절친’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정보까지 한번 달릴까?”라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된 라이딩은,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휴식 여행이 되었습니다.

글/사진 생산2팀 김민석 책임







## 160km의 여정, 서로의 페이스를 맞추다

영천에서 출발해 경산에서 접선하기로 한 새벽 6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출을 마주하고 달린 끝에, 동료의 뒷모습이 보였을 때의 그 반가움이란! 하지만 자전거 숙련도에 차이가 있다 보니 동료가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착지까지 무리해서 가기보다, 잠시 자전거를 바꿔 타며 속도를 늦추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80km를 달려 도착한 강정보에서 먹는 점심은 그 무엇보다 꿀맛이었죠.

가는 길에 정년 퇴직하신 조장님을 우연히 만나 안부를 나누었던 순간은, 라이딩이 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왕복 160km.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여정은 동료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와 함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 바람과 오르막이 가르쳐준 것들

우리의 라이딩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역풍에 맞서 왜관까지 120km로 아쉽게 마무리하고 따뜻한 복지리탕으로 위로받기도 했고, 차에 자전거를 싣고 밀양으로 점프해 부산까지 이어지는 환상적인 강변 길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 밀양강에서 낙동강까지, 강바람을 가르는 라이딩 여정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탁 트인 강변을 따라 달리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차에 자전거를 싣어 밀양까지 점프를 해서 부산으로 강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라이딩이란...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꽉 막힌 도로 위를 벗어나, 조금은 특별한 주말을 보내고 싶어 밀양의 자전거길, 탁트인 강을 옆으로 하여 조용하게 갈수있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도 험티재입니다. 엄청난 오르막이 반복되는 이곳은 초보자에게는 고행길이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기어 변속조차 쉽지 않은 구간을 힘들게 정복하고 내려올 때 느끼는 그 해방감! 정상에 오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드레날린과 60km에 달하는 시원한 다운힐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희열을 선물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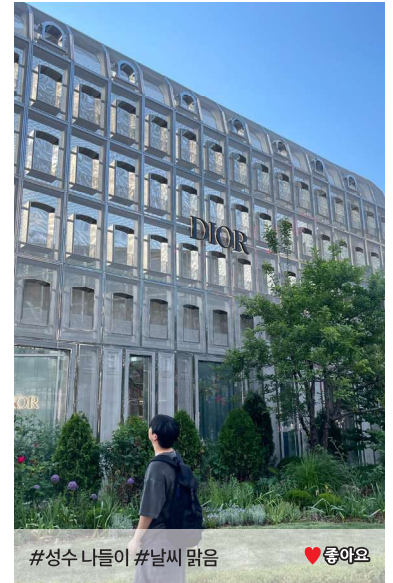
## 여러분의 '오피스 절친'은 누구인가요?

가끔 업무 중에 힘들 때, 동료와 함께 땀 흘리며 달렸던 그날의 기억들이 저를 다시 웃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사 안에서 서로 조연을 구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오피스 절친'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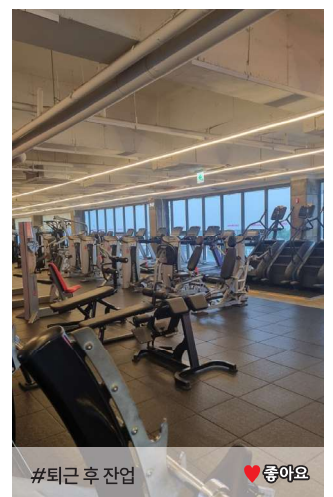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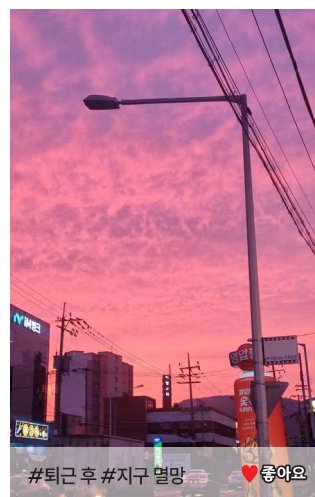
서로의 페이스를 맞춰주며 함께 달리는 인생길, 그 동료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더 즐겁게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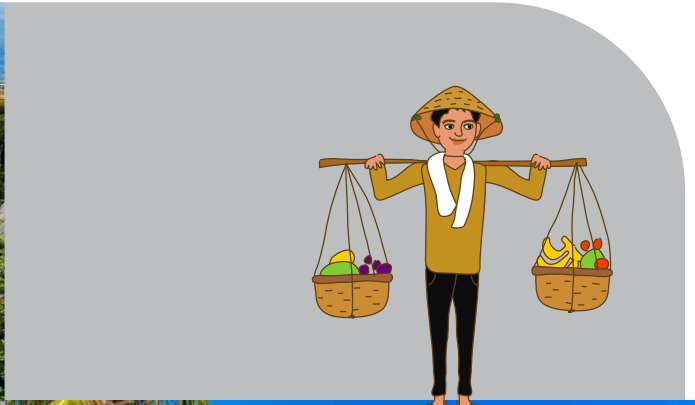


#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 여행지

글/사진 개발시험팀 주반틴 사원



# 베트남의 숨은 보석을 찾아서



## 다낭, 나트랑, 푸꾸옥,...

아름다운 해변과 편안함으로 이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베트남의 대표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이 더 많습니다.

익숙한 휴양지를 벗어나 베트남의 진짜 속살을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독특한 자연경관과 깊은 지역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지금부터 미처 몰랐던 베트남의 숨은 매력 도시, 닌빈(Ninh Binh), 하장(Ha Giang), 꾸이년(Quy Nhon)으로의 특별한 여정을 소개합니다.

# 닌빈(Ninh Binh) - 육지의 하롱베이



출처[<https://blog.naver.com/waugmagazine/223803248327>]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닌빈은 하노이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웅장한 석회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립니다.

## 대표 관광지



출처[<https://unsplash.com/ko>]

### 짱안(Trang An)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작은 배를 타고 강과 동굴을 따라 이동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석회암 지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대표 명소입니다.



출처[<https://unsplash.com/ko>]

### 탐콕(Tam Coc)

강이 논밭 사이로 흐르며 만들어내는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며, 특히 벼가 익는 계절에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사진 명소로 유명합니다.





### 항무아(Hang Mua)

계단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난빈 전경과 논, 강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입니다.



### 바이딘 사원(Bai Dinh Pagoda)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원 단지로, 넓은 공간과 웅장한 건축물이 특징이며 종교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추천 음식



### 염소고기 레몬무침



### 팬구이 염소고기



### 겜짜이(누룽지)

현지에서는 난빈 염소고기와 난빈 겜짜이(누룽지)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특별한 음식 문화로 즐기고 있습니다.

## 추천 여행 시기

### 추천 여행 시기

4월 ~ 6월: 푸른 논과 황금빛 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기 / 9월 ~ 11월: 선선한 날씨로 여행하기 좋은 시기

### 여행 TIP

하노이에서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 여행이 가능합니다.



# 하장(Ha Giang) - 베트남 최북단의 절경



하장은 베트남 최북단에 위치한 산악 지역으로,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아가고 있어 자연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 대표 관광지



### 마피렝 고래(Ma Pi Leng Pass)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 도로 중 하나로,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이어지는 도로와 끝없이 펼쳐진 산맥 풍경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하장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 노궤강(Nho Que River)

에메랄드빛 강물이 깊은 협곡 아래로 흐르며 만들어내는 풍경이 매우 독특합니다. 보트를 타고 협곡 사이를 지나며 감상하는 경험이 인기입니다.





### 동반 야시장(Dong Van Night Market)

동반 전통 야시장으로,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현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 하장 메밀꽃밭(Buckwheat Flower Fields)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메밀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분홍빛과 보랏빛 풍경을 만들어 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하장의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 추천 음식



훈제 물소고기



오색 찹쌀밥



흑담 전골

훈제 물소고기, 오색 찹쌀밥, 흑담 전골은 하장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입니다. 훈제 물소고기는 독특한 훈제 향과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며, 오색 찹쌀밥은 천연 재료로 색을 낸 전통 음식입니다. 흑담 전골은 담백하고 깊은 맛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 추천 여행 시기

### 추천 여행 시기

9~11월 : 메밀꽃 시즌 / 3~4월 : 봄꽃 시즌

### 여행 TIP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약 6~7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3박 4일 일정을 추천합니다.



# 꾸이년(Quy Nhon) - 숨겨진 해변 도시



출처[<https://vinpearl.com/vi/ky-co-quy-nhon-kinh-nghiem-vui-choi-an-uong-chi-tiet>]

꾸이년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다른 유명 관광지보다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휴양 여행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자연 그대로의 해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표 관광지



출처[<https://vietnamese/long-form/hoang-so-ky-co-340231.html>]

### 끼꼬(Ky Co)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베트남의 몰디브”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출처[<https://vinpearl.com/en/quy-nhon-vietnam>]

### 에오지오(Eo Gio)

바다를 따라 형성된 절벽 산책로에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내는 자연 풍경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 혼코 섬(Hon Kho)

베트남어로 '마른 섬'이라는 뜻인데, 이름과 달리 스노클링과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섬으로, 맑은 바닷속 산호와 물고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탑도이(Thap Doi)

참파 왕국(Cham Pa Kingdom, 2~15세기 베트남 중부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 시대에 건설된 탑으로, 베트남 중부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지입니다.

## 추천 음식



### 분짜까(Bun Cha Ca)



### 반썬옴냐이



### 소라 요리

꾸이년은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색이 담긴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대표 음식인 분짜까와 반썬옴냐이를 비롯해 다양한 소라 요리는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꾸이년의 매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 추천 여행 시기

**추천 여행 시기** 3~8월 : 건기, 해변 활동에 가장 적합

**여행 TIP** 조용한 휴양 여행에 적합한 도시

베트남은 다낭, 나트랑, 푸꾸옥 외에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수많은 여행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닌빈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유적, 하장에서는 장엄한 산악 풍경과 소수민족 문화를, 꾸이년에서는 한적한 해변과 여유로운 휴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베트남 여행에서는 조금 다른 목적지를 선택하여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SUV는 어떻게 지구를 정복했는가?

글/사진 구매팀 홍대연 주임



필자는 최근 결심을 하고 세단을 구매했습니다. 네, 저는 거대한 SUV 전성시대의 흐름 속에서 곳곳한 ‘세단파’임을 당당히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요즘 도로에 앞을 봐도 높고, 옆을 봐도 거대하며, 뒤를 봐도 뚱뚱한 SUV들이 도로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통계마저 야속합니다.

지난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SUV 비중은 무려 57.8%를 기록하며 과반을 훌쩍 넘긴 반면, 세단은 30% 선마저 무너지며 29.0%로 내려앉았습니다. 심지어 전통의 명차였던 아우디 A8 같은 플래그십 세단마저 단종 수순을 밟고, 그 자리를 대형 SUV가 대체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이토록 SUV에 열광하는 걸까요? 세단파의 눈물 어린 시선으로, SUV가 자동차 시장의 절대 권력을 잡게 된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유쾌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 연도       | 승용차 중 SUV 비중 |
|----------|--------------|
| 2020년    | 43.3%        |
| 2021년    | 46.6%        |
| 2022년    | 50.8%        |
| 2023년    | 53.3%        |
| 2024년    | 56.6%        |
| 2025년    | 57.8%        |
| 2026년 1월 | 55.3%        |
| 2026년 2월 | 58.5%        |

[출처: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 "내려다보는 맛"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SUV운전자들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기분은 내가 도로의 지배자가 된 것인가? 하는 묘한 권력감입니다. 이를 자동차 업계에서는 ‘커맨딩 뷰(Commanding View)’라고 부릅니다. 시트 위치선이 높다 보니 도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고, 도심 정체 속에서도 앞 차의 앞 차 상황까지 미리 볼 수 있어 운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게다가 세단에 탈 때처럼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 탑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대에 걸터앉듯 자연스럽게 착석할 수 있다는 점은 척추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처: 생성형 AI]

## “이러다 집도 싫겠어” 공간의 대혁명

과거의 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었다면, 지금의 차는 내 라이프스타일의 확장판입니다. 캠핑, 차박, 골프, 자전거 등 아웃도어 열풍이 불면서 세단의 트렁크는 순식간에 좁은 창고 처지가 되었습니다.

SUV는 2열 시트만 접으면 광활한 평지가 펼쳐집니다. 이케아에서 조립식 가구를 충동구매해도, 캠핑 장비를 테트리스 하듯 육여넣지 않아도 다 들어갑니다. 세단파들이 “차는 자고로 정숙함과 코너링이지!”라고 외칠 때, SUV파들은 “난 내일 내 차에서 자고 올 건데?”라며 ‘차박’ 텐트를 치는 광경 앞에 세단파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처: 생성형 AI]

## 돼지 같던 연비? 이젠 옛말입니다

사실 세단파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은 ‘연비와 승차감’이었습니다. 과거 프레임 바디 기반의 SUV는 무겁고 기름을 길바닥에 쏟아붓는 주유소의 탭티어 고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악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세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크로스오버를 대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승차감은 세단처럼 부드러워졌고,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연비마저 세단을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핸디캡이 사라진 SUV는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생성형 AI]



## 제조사들의 검은 속내: "SUV가 돈이 되거든"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차가운 논리도 숨어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SUV는 세단과 비슷한 비용을 들여 만들어도 소비자에게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입니다. 경기 침체와 전동화 투자로 비용 압박을 받는 GM, 포드, 현대차/기아 등 글로벌 제조사들이 마진이 높은 SUV 라인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한 비즈니스적 선택입니다. 포드가 북미 시장에서 머스탱을 제외한 세단 라인업을 과감히 정리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조사가 SUV를 밀고, 소비자가 이에 응답하면서 세단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 출처: 생성형 AI ]

## 전기차 시대, SUV의 날개를 달다

최근 전기차로의 전환은 SUV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차량 하부에 넓게 배치해야 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세단은 바닥에 배터리를 깔 경우 헤드룸이 낮아져 거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만, 원래 지상고가 높은 SUV는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로 테슬라의 SUV 모델인 '모델 Y'가 꼽히는 점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 출처: 생성형 AI ]

**결론적으로**, SUV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대인의 바빠진 라이프스타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업의 수익 구조가 완벽하게 삼박자를 이뤄 탄생한 '시대의 필연적 트렌드'입니다.

## **SUV의 시대, 언제가 저물까?**

그렇다면 이 SUV의 독주는 영원할까요?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변수가 될 것이라 점칩니다. 배터리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해 더 얇은 배터리가 나오거나, 다시 낮은 자세의 전기 세단들이 주행거리 효율을 앞세워 등장한다면 시장의 판도는 다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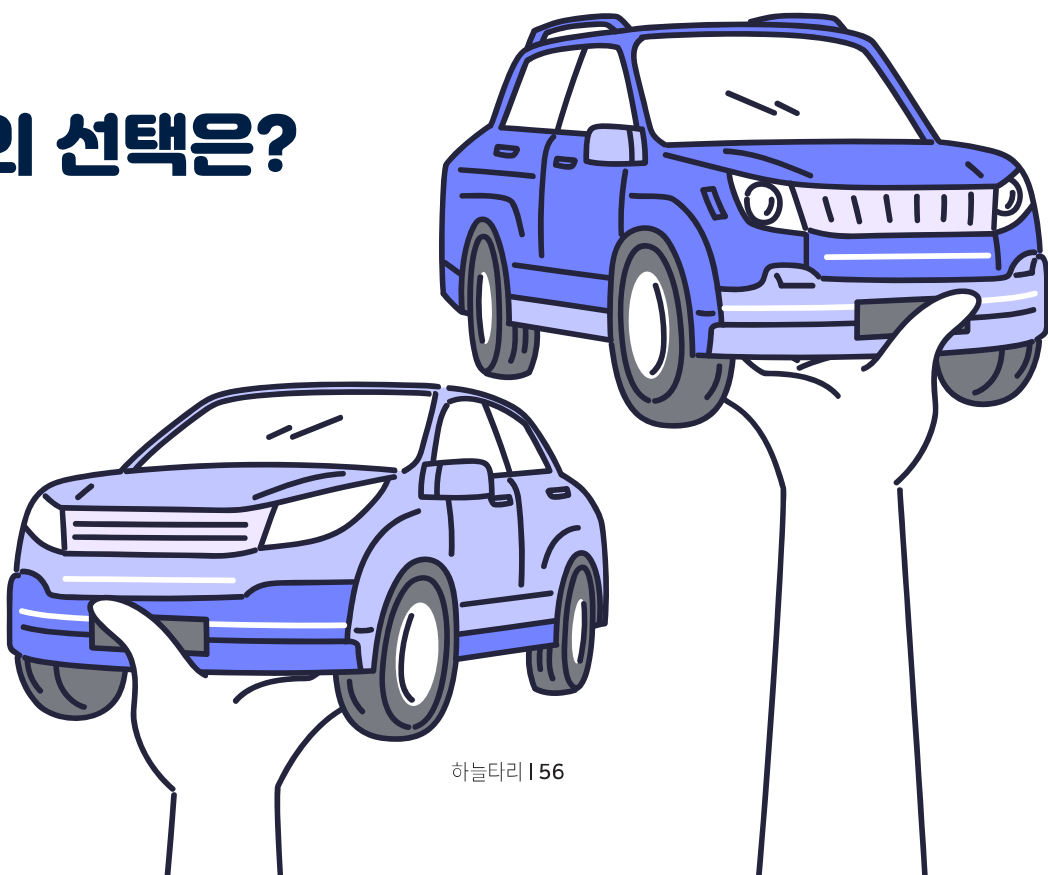
SUV가 정복한 이 거대한 시장에, 다시 우아한 세단들이 '연비와 주행거리'라는 무기를 들고 화려하게 복귀하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SUV 열풍도 하나의 흥미로운 자동차 역사로 남게 되겠지요.

시대의 대세가 SUV라 한들 무엇이 맞고 틀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차가 최고의 차라는 점이겠지요. SUV의 전성시대, 하지만 여전히 도로의 주인공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차입니다.

여러분의 드라이빙이 세단이든 SUV든,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길 되시길 바랍니다.

## **당신의 선택은?**





# 고유가 시대, 달라지는 직장인 이동 트렌드

글/사진 생산기술2팀 최우빈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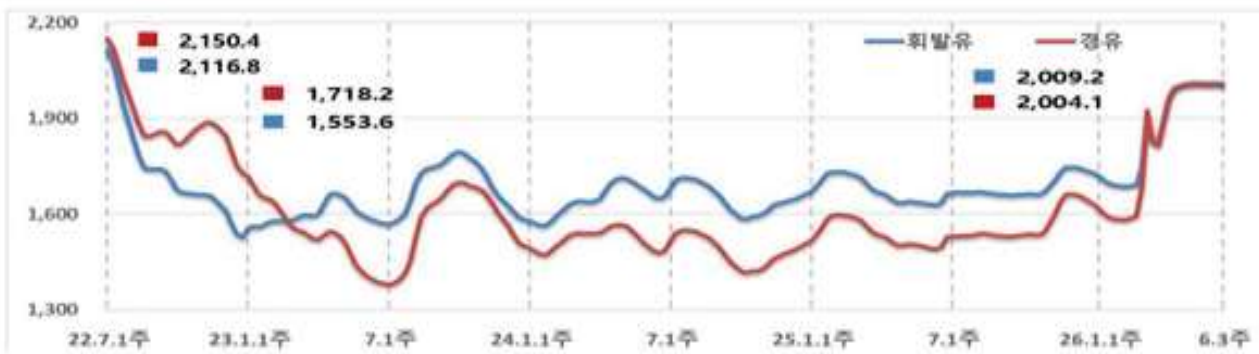
매달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주유소를 찾지만, 전광판 숫자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2026년 4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국제유가 상승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500원대이던 기름값이 이제는 2,000원을 훌쩍 넘어선 지금, 고유가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직장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트렌드 돋보기에서는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고, 고유가 시대에 달라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이동 트렌드와 현명한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고유가 시대의 현황

### 1-1. 얼마나 올랐나?

2026년 4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5월에는 2,011원까지 올랐고, 경유 역시 2,005원으로 휘발유와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0년 1,300원대와 비교하면 불과 6년 만에 약 5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한 달에 두세 번 60리터씩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월 주유비는 약 24만~36만 원 수준에 달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88만~432만 원,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 기름값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주유소 판매가격(단위 : 원/L)

출처 : 한국석유공사(2026.06) <https://www.opinet.co.kr/user/ofdoptd/getOfdoptdDetail.do>

### 1-2. 왜 이렇게 비싸졌나?

국내 기름값 상승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제 원유가 상승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OPEC+ 감산 기조가 맞물리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 기름값이 출렁이고, 그 여파가 한국 주유소 가격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 환율 영향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이상을 유지하면서 원유 수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유는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더라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 세금 구조

국내 기름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유가 하락이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달라지는 직장인 이동 트렌드

### 2-1. 대중교통·통근버스 이용 증가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경우 월 주유비만 약 30만 원이 소요되지만, 통근 버스를 이용하면 이 비용을 고스란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 피로까지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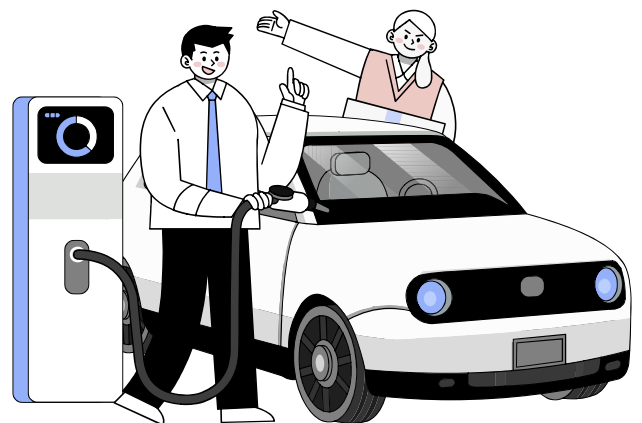
### 2-2. 전기차·하이브리드 전환 가속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신차를 구매할 때 연료비를 먼저 따지는 소비자들 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으로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걱정 없이 기름값은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역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 부담이 커질수록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름 넣을 거야?'라는 질문이 이제는 진지한 고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3. 똑똑한 절약 트렌드

#### (1) 알뜰주유소 활용

한국석유공사가 지정한 알뜰주유소는 대형 정유사 브랜드에 종속되지 않아 공급 단가가 낮습니다. 동일한 품질의 기름을 일반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80~100원 저렴하게 넣을 수 있으며, 셀프 주유까지 더하면 최대 130~150원 차이가 납니다. 60리터 기준으로 한 번 주유할 때 최대 9,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국 알뜰주유소 수는 2026년 기준 약 1,30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네이버·카카오 지도 앱에서 '알뜰주유소'로 검색하면 내 주변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지역화폐(지역사랑카드) 활용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카드(지역화폐)는 충전 시 5~10%의 인센티브가 즉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5,000원~11만 원 상당의 잔액이 생겨 그만큼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라면 이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어 연료비 절약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모든 주유소가 가맹점인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해당 지역화폐 앱에서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3) 주유 할인 신용카드 활용

카드사마다 주유 특화 할인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60~210원 할인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카드별로 전월 실적 조건과 적용 가능한 주유소 브랜드가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맺음

기름값 2,000원 시대는 단순히 주유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의 출퇴근 방식, 차량 선택 기준, 소비 습관 전반을 바꾸고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대중교통과 카풀 이용이 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며, 알뜰주유소와 지역화폐 활용이 '절약의 루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값을 개인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이동 수단, 결제 방식, 주유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월 수만 원,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고유가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는 작은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편집자가 선정한 BEST Cut & Writing

이달의 Best Cut & Writing으로 선정되신 직원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세상 느긋한 자전거 여행~

맑고 화창한 가을날,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푸른 나무들이 자전거 여행의 시작. 노란색 바람막이와 헬멧으로 무장한 모습에서, 곧 힘차게 페달을 밟고 질주할 설레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자전거와 함께한 여행속에서 건강한 에너지 가득 담아 왔길 바랍니다.

## 프로의 다이어리 中 부품개발팀 노준혁 주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 R&B라면,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듣고 싶은 음악은 PBR&B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기분 따라 장르를 선택해 들곤 합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는 R&B를, 조금 더 깊은 감성에 빠져들고 싶을 때는 PBR&B를 찾게 됩니다.

## 오피스 절친 中 생산2팀 김민석 책임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손을 보태주고,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을 달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업무를 넘어 인생의 속도를 함께 맞춰주는 '오피스 절친'이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된 라이딩은,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휴식 여행이 되었습니다.

# 사우동정 [ 사우들의 동정과 경조사 등을 전합니다! ]



## 탄생을 축하합니다!

|              |               |        |    |
|--------------|---------------|--------|----|
| 2026년 1월 27일 | 생산2팀 용접4반     | 한영탁 사원 | 득녀 |
| 2026년 3월 26일 | 화신정공 생산2팀 보전반 | 권용원 사원 | 득녀 |
| 2026년 4월 1일  | 마케팅1팀         | 주명수 책임 | 득녀 |
| 2026년 4월 16일 | 생산1팀          | 전명찬 팀장 | 득남 |
| 2026년 4월 27일 | 생산1팀 조립1반     | 주시연 사원 | 득녀 |
| 2026년 5월 5일  | 신차품질팀         | 이동영 책임 | 득남 |
| 2026년 5월 6일  | 부품개발팀         | 박창우 주임 | 득남 |
| 2026년 5월 18일 | 생산3팀 BPC반     | 이승진 사원 | 득남 |
| 2026년 6월 5일  | 제품설계2팀        | 최재홍 책임 | 득남 |
| 2026년 6월 9일  | 품질팀           | 김경민 책임 | 득녀 |
| 2026년 6월 10일 | 생산기술1팀        | 김창식 주임 | 득남 |
| 2026년 6월 17일 | 생산기술1팀        | 최건영 책임 | 득녀 |
| 2026년 6월 26일 | 화신정공 품질관리팀    | 장지홍 책임 | 득녀 |



## 결혼을 축하합니다!

|              |                             |
|--------------|-----------------------------|
| 2026년 1월 4일  | 화신 생산2팀 용접3반 도한열 사원 결혼      |
| 2026년 2월 1일  | 화신정공 생산2팀 생산3반 윤상균 사원 결혼    |
| 2026년 2월 7일  | 화신 생산기술2팀 박기호 사원 결혼         |
| 2026년 3월 7일  | 화신정공 생산2팀 보전반 최하준 조장 결혼     |
| 2026년 2월 28일 | 화신정공 생산1팀 생산2반 박명보 사원 차녀 결혼 |
| 2026년 3월 7일  | 화신 제품설계2팀 류형권 주임 결혼         |
| 2026년 3월 7일  | 화신 안전환경보건팀 한동진 주임 결혼        |
| 2026년 3월 8일  | 화신 설비관리3팀 보전3반 서승덕 사원 결혼    |
| 2026년 3월 15일 | 화신 재경팀 김동필 선임 결혼            |
| 2026년 3월 15일 | 화신 생산2팀 용접3반 배성진 사원 결혼      |
| 2026년 3월 29일 | 화신 생산1팀 용접1반 박경수 사원 결혼      |
| 2026년 4월 12일 | 화신 생산2팀 용접3반 김형수 사원 결혼      |
| 2026년 4월 18일 | 화신 해외사업부 장의호 부사장 차녀 결혼      |
| 2026년 4월 18일 | 화신 전략경영팀 이진홍 주임 결혼          |
| 2026년 4월 19일 | 화신 설비관리3팀 보전3반 김진현 사원 결혼    |
| 2026년 4월 25일 | 화신 총무팀 박동규 사원 장남 결혼         |
| 2026년 4월 26일 | 화신 설비관리1팀 이준상 주임 결혼         |
| 2026년 5월 2일  | 화신 성형솔루션팀 홍진우 책임 결혼         |
| 2026년 5월 10일 | 화신 생산팀 이찬희 주임 결혼            |
| 2026년 5월 10일 | 화신 생산팀 조립반 한경은 사원 결혼        |
| 2026년 5월 23일 | 화신 물류관리팀 박주철 책임 차녀 결혼       |
| 2026년 5월 24일 | 화신 PM팀 광문혁 주임 결혼            |
| 2026년 6월 13일 | 화신 생산1팀 조립1반 서진교 사원 아들 결혼   |
| 2026년 6월 13일 | 화신 생산2팀 용접3반 백종길 사원 차남 결혼   |
| 2026년 6월 14일 | 화신 안전환경보건팀 김진형 책임 딸 결혼      |
| 2026년 6월 20일 | 화신정공 개발팀 김현준 선임 결혼          |
| 2026년 6월 21일 | 화신 생산1팀 용접2반 이명직 조장 차녀 결혼   |
| 2026년 6월 21일 | 화신 총무팀 오영현 사원 아들 결혼         |
| 2026년 7월 4일  | 화신 제품설계3팀 권새영 선임 결혼         |
| 2026년 7월 4일  | 화신정공 생산1팀 보전반 배재형 사원 결혼     |
| 2026년 7월 5일  | 화신 생산2팀 프레스2반 김찬근 사원 결혼     |

원고를 기다립니다!

사보내 코너와 관련된 글은 물론 화신의 여러가지 소식들, 재밌는 이야기, 알고 싶은 것 등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하늘타리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발행일 2026년 7월 24일 / 통권 제75호 발행인 정서진, 배현주 | 편집인 허규학 | 발행처 사보편집부  
발행처 총무팀 기획·취재 총무팀 T.054-330-5147 majhur@hwashin.co.kr  
「하늘타리」 한울타리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픈 화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울타리에 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사보기자단

총무팀 허규학 책임 / 생산2팀 김민석 책임 / 생산기술2팀 최우빈 주임 / 개발시험팀 주반틴 사원 / 부품개발팀 노준혁 주임 / 품질관리1팀 윤건호 주임  
구매팀 홍대연 주임 / 안전환경보건팀 이해인 주임 / 생관물류팀 전진호 책임 / 글로벌기획팀 서진희 주임 / 업무팀 양성련 주임